

중국 표고버섯 관련 컨퍼런스 주제 발표

2015. 12

민 경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출장개요

□ 출장명: 중국 표고버섯 축제행사 참석 및 관련 컨퍼런스 주제 발표

□ 출장목적

- 중국 호북성 수이현에서 개최되는 표고버섯 축제(2015 The China Suixian Shiitake Mushroom Festival) 행사의 일환으로 표고버섯 산업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국 표고버섯축제조직위원회의 초청)

※ 행사일정: 2015. 12. 11. ~ 13. (3일간), 湖北省, 隨縣

□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소속	출장자	직위	출장기간	출장지
산림정책연구부	민경택	연구위원	12월11일(금)~12월13일(일) (2박 3일)	중국 호북성

□ 주요 활동내용

- 2015년 축제의 일부로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표고버섯 생산, 소비 및 수출입”에 대한 주제발표.

□ 주요 일정

일시	이동 및 주요 일정
12.11(금)	▪ 나주 → 인천공항 → 우한공항 → 수현으로 이동
12.12(토)	▪ 축제 행사 참석 ▪ 주제발표: 한국의 표고버섯 생산, 소비 및 수출입
12.13(일)	▪ 축제 행사 참석
12.14.(월)	▪ 수현에서 우한시로 이동
12.15.(화)	▪ 우한공항 → 인천공항 → 나주

2. 출장 결과

(1) 2015 중국 표고버섯 축제 참석

- 호북성 쑤이저우 시는 중국의 4대 표고버섯 집산지의 하나임. 표고버섯 축제는 쑤이저우 시 근처의 수현에서 개최됨.
- 충남 청양군이 수현과 자매결연하기 위해 부군수를 비롯하여 다수 출장하였음.
- 표고버섯 관련 기계장비, 가공제품 등이 전시되어 구매 상담이 진행되며 동시에 중국 표고버섯 재배와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 외국(한국, 대만)의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컨퍼런스가 개최됨.
- 1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됨.
- 출장자는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하고 지역 방송국과 인터뷰하였음.

(2) 주제 발표

- 제 목: 한국의 표고버섯 생산, 소비 및 수출입 동향
- 발표요지
 - 한국은 연간 4만 톤 가량의 표고버섯을 생산하였으나 최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표고버섯 생산은 원목재배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톱밥배지 재배로 전환되고 있음. 톱밥배지를 이용한 재배는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배지공급은 부족하여 중국산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표고버섯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였고, 표고버섯에 대한 선호가 높음. 중국산 표고버섯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은 편은 아님.
 - 과거 표고버섯은 일본으로 주로 수출되었으나 현재 일본으로 수출되는 양은 거의 없음. 최근에는 대만으로 수출이 늘고 있음. 수입은 100%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음.

- 한국의 표고버섯 소비는 안정되어 있으며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고령인구의 증가는 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음. 농촌인구의 감소, 생산자의 고령화 등으로 원목재배 표고버섯 생산은 감소 추세임. 생산에서 톱밥재배 방법 확산, 배지제조보급시설 확산. 장기적으로 한국의 표고버섯 생산은 연간 4만 톤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생표고 환산)

(3) 기타

- 중국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자동화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의 기술로 자동화한 결과 1회 수확밖에 가능하지 않아 실용화하지는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음.
- 축제 후원기업은 4만 봉 재배 시설을 260동 가지고 있다고 함. 우리나라 배지재배 농가들이 10만~30만 봉 재배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규모임.
- 표고버섯을 선별, 포장하는 체제가 대기업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음.

(4) 학회 참가 사진



<행사 진행 장면>



<주제발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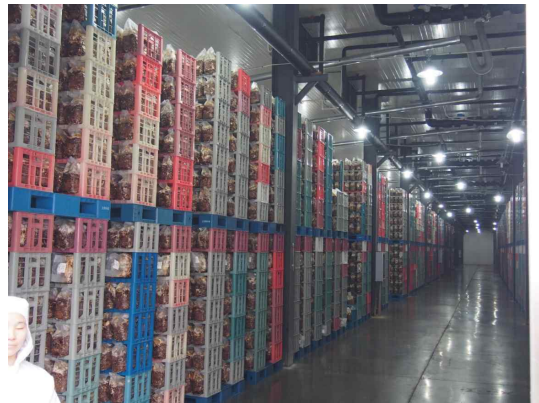
<주제발표 후 촬영>



<표고버섯 시험장>



<표고버섯 선별과 포장>



<표고버섯 배지 배양장>